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김 정 란 이 은 희[†]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중년 어머니들의 불안정 애착이 어떠한 심리적 경로를 통하여 중년 여성의 우울증과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을 통하여 우울을 증가시키고, 중년 어머니의 우울이 다시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전달되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경상남도내의 마산, 창원, 진주,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10군데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40개 학급의 508쌍의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여성의 불안애착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불안정 애착 중 불안애착이 우울증의 핵심요소임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둘째, 역기능적 태도가 불안애착과 우울증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부부갈등이 우울증을 유발하며, 불안애착이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을 통하여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재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중년 여성의 우울은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불안정 애착 유형 중 불안애착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피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중년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애착은 우울증을 유발하는데, 역기능적 사고의 수준에 따라서 우울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중년 어머니의 우울증상은 다시 세대간에 전달되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불안정 애착, 역기능적 태도, 부부갈등, 우울, 문제행동

* 본 논문은 2007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이은희,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Email : ehlee@kyungnam.ac.kr

현대에 들어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중년기 이후의 인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년기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서 다양한 변화에 잘 적응해야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기이다. 중년기는 보편적으로 생활연령 면에서 40-59세까지를 의미하는데(신희석, 2002), 중년기에 접어들면 젊음과 외모의 상실로 인해 허무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 등으로 인해 특히 여성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정신적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들기도 한다. 우울증은 여성들이 생리적, 사회심리적 요인과 환경 및 역할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권숙희, 1996)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여성이 평생 동안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20% 이상으로(Hammen, 2003)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2배 높는데(Kessler, McGonagle, Swartz, Blazer, & Nelson, 1993), 특히 중년기 여성들의 50.5%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유은광, 김명희, 김태경, 1999)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가 중년기 여성 내담자 상담의 핵심 주제임을 시사한다.

최근의 우울연구(Bifulco, Moran, Ball, & Bernazzani, 2001; 권정혜, 2002에서 재인용)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이 안정애착유형보다 2배의 우울증 발병률을 나타냈고, 불안정 애착집단의 우울/불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애착이 대인불안과 우울의 원인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어서(한상희, 2005) 애착이 우울의 선행변인임을 시사한다.

우울증의 발병과 유지에 대인관계적 요인들과 인지적 역기능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 명백해져서(예, Barnett & Gotlib, 1988; Gotlib, 1992), 우울증 환자의 취약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과정과 대인관계적 과정들을 통합하여 인지-대인관계적 관점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예, Blatt & Homann, 1992; 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Gotlib & Hammen, 1992; Joiner & Metalsky, 1993; Lewinsohn, Hoberman, Teri, & Hautzinger, 1985; Safran & Segal, 1990; Swallow & Kuiper, 1988; Robert Gotlib & Kassel, 1996에서 재인용) 이들 요인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껏 이러한 통합적 접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김은정, 권정혜, 1998a),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요인으로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권정혜, 2002). 그러나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태도는 이들의 문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이며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방식임을 감안해 볼 때(Christensen, 1987), 역기능적 태도는 부부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장문선, 김영환, 2003에서 재인용). 결국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인지적 요인인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적 요인인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삼아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을 통합한 실증적인 연구가 드물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년의 행동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과 가족환경을 들 수 있는데, 신은영과 김경연(1996)의 연구에서, 아동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준 사건들은 모두 부모와 관련된 것으로 대개 부모의 이혼, 부모의 질병, 부모의 부부싸움, 부모의 애정철회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이혼은 이혼 그 자체보다 이혼을 전후하여 나타나게 되는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어 부부간 결혼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식, 1999: 장휘숙, 1997: Osborne & Fincham, 1996: Peterson & Zill, 1986).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 비행 및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미성숙 행동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김경연, 1999: 이민식, 1999: Harrist & Ainslie, 1998).

George, Kaplan과 Main(1995)은 어머니가 아동기 때 가졌던 애착에 대한 내적 표상이 현재 자녀와의 애착 유형과 66~82%까지 일치됨을 발견하면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은 어머니의 현재 심리적 특성이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자녀에게 회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랄 때 형성된 정신적 표상이 내면화되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사되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결국 자녀의 부적응이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미경, 김영희, 2003). Tompson(2000)도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애착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주요한 이유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아 생의 초기에 형성된

성격특성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결국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애착에 대한 내적표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에게 투사되어 부부갈등과 우울증을 유발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전달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orgenson(1985)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의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 역할 수행의 세대간 연속성을 강화와 모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들은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동 패턴 뿐 만 아니라 아동들의 일상적인 태도와 정서적 반응까지도 모델링과 모방을 통하여 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성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엄격한 신체적 훈육과 처벌인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정미경, 김영희, 2003).

결론적으로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어떻게 유발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과 대인관계적 요인을 통합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렇게 유발된 중년 여성의 우울증이 실제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전달되는 효과가 있는가? 즉 세대간 전달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상이 불안정 애착에서 유발되며 이러한 불안정 애착이 역기능적 대인관계를 통하여 우울증상을 유발한다는 인지적 관점과 불안정 애착이 부부갈등을 통하여 우울증상을 유발한다는 대인관계적 접근이 유용한지와 부모의 갈등과 모의 정서적 문제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세대간 전달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방

을 위한 학부모 교육전략의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애착과 우울

유아가 태어나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 특히 어머니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애착관계로서, 생애 초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조부모 및 다른 친인척에 대한 애착으로 확장되고 그것은 다시 또래, 친구 및 배우자에게 까지 확장되므로(Bretherton & Waters, 1985; Waters, Hamilton & Weinfeld, 2000; 장휘숙, 2006에서 재인용) 애착은 유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 더 나아가서 성인기의 삶에 중요한 발달과제로 여겨진다. 발달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영아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며, 이러한 내적 관계는 '내적 작동 모델'의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아동기와 성인기를 거쳐서 노년기에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Ainsworth, 1969; Bowlby, 1958, 1973, 1979; Rothbard & Shaver, 1994;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에서 재인용) 보고 있다.

Ainsworth, Blehar, Waters 및 Wall(1978)는 유아들이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홀로 남겨졌을 때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안정(secure), 회피(avoidance), 불안/양가(anxious/ambivalent)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Hazan과 Shaver(1987)는 이들과 동일한 형태의 애착유형이 청소년과 성인의 낭만적 관계와 부부관계에까지 명백히 나타난다고 보고 Ainsworth 등(1978)의 유아의 3가지 애착유형에 대한 진술에 토대하여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였다. 대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점수들에 근거해서 보면

(Shaver & Hazen, 1993; Rothbard & Shaver, 1994; Cooper, Shaver & Collins, 1998에서 재인용) 안정 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자신감이 있고, 사회적 기술이 있으며, 개방적이며, 낭만적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장기간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과 버림받음을 걱정하며, 무분별하게 빨리 사랑에 빠지고, 빈번히 관계가 깨지고 재결합하는 사람들이다. 회피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친밀함이 불편하며 장기간의 낭만적 관계에 빠지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고, 자기 노출을 불편해하며, 비교적 자기감정을 억제하고 사회적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다.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aver(1987)의 척도의 진술문의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성인애착을 친밀, 의존가능성, 불안차원으로 구분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세 가지 애착 차원을 통하여 연애중인 기쌍을 대상으로 각 하위차원들이 연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 불안감 차원이 연애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남성의 경우에는 친밀감 차원이 연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impson(1990)도 두 사람의 관계의 질과 애착유형을 분석한 결과 관계의 질과 유형 간에 가장 높은 부적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우에 불안정 애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남편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녀의 생활 만족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남편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더 높은 수준의 생활 만족을 경험하는 자녀를 갖는다고 보고함으로써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배우자에 대한 애착에 까지 확장됨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성인의 애착을 연구 할 때 과거의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애착 상태를 측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derson, Beach 및 Kaslow(1999; 권정혜, 2002)에서 재인용)는 불안정 애착을 가진 개인은 애착인물인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소홀하게 대할 때 과민하게 반응하고, 또한 배우자가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불신하여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여 우울증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권정혜(2002)는 우울증 환자집단이 정상인 집단보다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한상희(2005)도 불안정 애착집단이 안정 애착 집단보다 대인불안과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지연(2006)은 애착불안이 우울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은정과 권정혜(1998b)는 불안 애착이 우울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영주(2005)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 애착(불안애착, 회피 애착)이 우울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역기능적 태도, 부부갈등 및 우울

감정이 인지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우울증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내용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는 Beck의 인지이론(Beck, 1976)은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모형(Cognitive Diathesis-Stress Model)에 근거하여 우울증의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스 즉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지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Beck은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을 인지도식(Schema)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특정한 내용의 인지도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부딪히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지도식인 역기능적 태도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Weissman과 Beck(1978)은 역기능적 태도가 현저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우울에 인지적으로 취약하다고 하였으며, Kuiper, Olinger와 Martin(1988)은 역기능적 태도와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우울증상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역기능적 태도를 나타내는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자극과 욕구를 자존감이나 행복에 더욱 심각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사소한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 합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개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정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권석만, 1994).

우울증의 대인관계적 접근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나 사회적 강화를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상이 악화된다고 본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가족의 비난과 우울증의 재발이 관련되고, 가족갈등이 낮고 가족기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면 회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Roberts 등(1996)의 연구결과는 우울증에 대한 대인관계적 접근이 우울증의 발생기제보다는 유지기제의 설명에 적합함을 시사한다.

우울증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불안정 애착을 중심으로 인지적 접근과 대인관계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인지-대인관계 통합접근(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Gotlib & Hammen, 1992)에서는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역기능적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도식을 발전시킨다고 본다. 즉 초기 양육자와의 부정적 애착경험을 한 사람은 인지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취약성이 있고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형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아기에 형성된 초기 양육자와의 부정적 애착경험이 내적 작동모델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지표상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 인지표상은 배우자가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도록 하고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확신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하여서 결국 이런 역기능적 행동이 배우자의 지지 철회를 초래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장문선, 2006).

Robert 등(1996)은 불안정 애착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애착과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존감이 상호작용할 경우에 우울증상이 야기된다고 보았다. Dichl,

Elnick, Bourbeau 및 Labouvie-Vief(1998)는 안정형 사람들이 불안정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가족 상태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자기확신과 사회적 기능측면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Meyers(1998)는 불안형이나 회피형의 사람들이 안정형의 사람들보다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기 비난적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권정혜(2002)는 불안정 애착 집단은 안정 애착 집단보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자기보고 검사로 측정된 결혼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들을 안정 애착 우울증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성취지향 적 역기능적 태도가 더 높은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우울증의 핵심요소 불안정 애착의 인지적 요인과 대인관계적 요인이 우울을 유발한다는 인지-대인관계 통합접근적 접근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 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역기능적 태도, 부부갈등, 우울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관계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인지-맥락 모델(cognitive-contextual model; Bradbury & Fincham, 1989; 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 Grych & Fincham, 1990)에서는 부모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방안과 같은 부모갈등의 개인적 중요도와 갈등의 의미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같은 인지요인이 아동의 부적응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부모의 갈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아동의 노력과 반응에 주목하였으며 부모간의

갈등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아동의 역할과 인지능력, 발달수준에 따른 갈등의 평가와 같은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윤희, 황순택, 2003). Grych와 Fichman(1993)도 부모갈등이 아동에게 위협적으로 지각되고, 자기 비난감을 유발하게 될 때, 아동이 분노, 슬픔, 근심, 수치심 등의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하는 시기와 방법을 학습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적 모델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며 다른 매체들에서보다 더 생생한 공격행동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 부모의 언어적, 신체적 갈등을 목격한 자녀는 공격적으로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Grych & Fincham, 1990).

Fantuzzo 등(1991; 김소향, 1994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언어적이건 신체적이건 모두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강덕귀, 2002; 정은희, 이미숙, 2004), 반사회성과 비행(이정미, 2002), 우울(Peterson & Zill, 1986), 불안과 사회적 위축(Holden & Ritchie, 1991; 정미경, 김영희, 2003에서 재인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과잉활동,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위축,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7; 이민식, 1999; Fincham, Grych, & Oshome, 1994; Harrist & Ainslie, 1998; 전연진,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이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문제)을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문제행동

우울증의 대인관계적 접근에서는 우울한 어머니와 자녀의 부적응 간에 작용하는 일차적인 요인을 어머니의 양육기술타라고 보고 있다(Downey & Coyne, 1990).

MacKinnon, Henderson과 Andrews(1993)는 부모의 애정없는 통제가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시형, 오강섭 및 허묘연(1998)은 부모의 거부, 높은 기대, 불안, 통제적 태도가 높은 대인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오동재, 전성일 및 장환일(1993)은 어머니의 돌봄 정도가 낮고 과보호가 많으면 우울, 불안, 적대감, 강박, 편집 증 대 부분의 정신병리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훈진(2004)은 부모의 학대와 방치가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기술타가 자녀의 정신병리와 연결됨을 시사한다.

Field, Healy, Goldstein과 Gutherts(1990)는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가족의 상호작용에서는 우울한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더 부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감정표현이 부족하고 자녀에게 반응을 더 적게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울한 사람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낮은 자존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해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갈등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누

적된 갈등을 갖기 쉽기 때문에(Cummings & Davies, 1994),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보다는 자녀에게 갈등을 누적시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연진(2002)도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 수준을 올려주고,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우울한 어머니의 빈번한 비밀관적인 양육행동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형태는 결국 자녀의 저항과 공격성을 불러일으키고 어머니는 다시 그런 자녀를 통제하는데 더욱더 강압적, 비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어머니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악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을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상이 불안정 애착, 역기능적 태도, 부부갈등을 통하여 유발되고, 이들 불안정 애착과 우울증상간에 관계에서 역기능적 사고와 부부갈등이 매개역할을 하고, 이들

의 부부갈등과 우울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문제(내재화 문제)와 행동적 문제(외현화 문제)에 전달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정들에 의거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경상남도내의 도시권지역인 마산, 창원, 진주,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10군데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40개 학급 1600여 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집에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자신의 내재화 문제(우울/불안, 위축)와 부모간의 부부갈등의 정도는 수업시간에 측정하였고, 이들의 부모에게는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 전달하여 어머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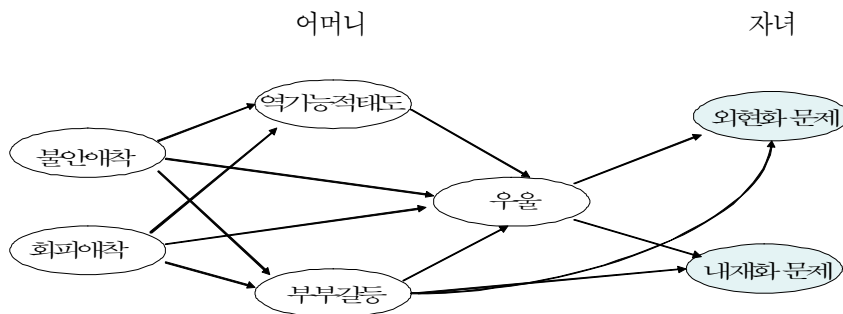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자신의 애착, 역기능적 태도, 우울 정도와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행동(공격성/비행)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담임교사의 협조문을 첨부하였으며, 설문내용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부모 설문지는 회신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설문지에 기입한 후에 밀봉을 하도록 하였다. 배포한 후 1주일 후에 수거 하였다. 최종적으로 부모용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거나 질문지의 응답 문항이 누락된 청소년을 제외한 752쌍의 어머니-청소년 자료가 수거되었으나 연구목적에 맞는 최종분석 대상 어머니-청소년은 508쌍으로서, 중학교 2학년이 179명(35.23%)이고 3학년이 329명(64.76%)이었으며, 남학생이 262명(51.57%)이 여학생이 246명(48.43%)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48세(표준편차 2.54세)이고 연령 최소값이 40세이고 최대값이 50세로서 주로 40대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성인 불안정 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것을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및 이은정(2001)이 번안한 4점 척도 18문항 중 불안차원 6문항을 선정하여 불안애착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의존차원에 속하는 4문항과 친밀 차원에 속하는 3문항을 선정하여 회피애착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는 불안애착 .69, 회피애착 .61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태도척도

본 연구에서는 Weissman과 Beck(1978)에 의해 개발된 역기능적 태도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A형 40문항을 권석만(1994)이 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4점 척도 25문항으로 축소한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는 성취지향성과 자율성이 .80, 사회적 의존성과 애정욕구가 .70, 척도 전체는 .85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척도

Grych, Seid 및 Fincham(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여부,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 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의 9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갈등의 특성요인이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Grych & Finchman, 1990; 정은희, 이미숙, 2004에서 재인용)을 참고로 하여 갈등의 빈도 6문항, 강도 7문항, 해결 6문항의 3개 차원의 4점 척도 19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는 갈등의 빈도가 .80, 갈등의 강도가 .85, 갈등해결이 .85, 척도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전경구, 최상진 및 양병창(2001)이 우리나라 척도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주일 동안 각 진술문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였는지를 '극히 드물게(1일 이

하)(0점), ‘가끔(1-2일)’(1점), ‘자주(3-4일)’(2점), ‘거의 대부분(5-7일)’(3점)의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ES-D의 내적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 척도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1991a)가 개발하고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및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K-CBCL 117문항과 Achenbach(1991b)가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및 이해련(2001)이 표준화한 K-YSR(Korea-Youth-Self Report) 119문항을 사용하여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및 홍강의(1998)가 요인분석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K-CBCL에서 공격성/비행 12문항을 K-YSR에서 우울/불안/위축 14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 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행동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공격성이 .77, 비행이 .52, 외현화 행동 전체는 .83으로 나타났으며, 우울불안이 .75, 위축이 .66, 내재화 행동 전체는 .8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LISREL8(Joreskog & Sorbom, 1993)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χ^2 값의 부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런데 χ^2 는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될 때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가적으로 χ^2/df 지수를 사용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χ^2/df 가 2이하인 바람직하지만(Bryne, 1989) 3이하인 경우까지(Kline, 1998) 자료가 잘 부합된다고 보았으며,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다변량 극단치를 SAS의 R-student, Cook's Distance, Dffits, Df Betas 통계량을 통하여 검증하여 23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공변량 구조모형의 자료에서 편포도(skewness) > |3.0|, 첨도(kurtosis) > |10.0|인 경우 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Kline, 1998). 그런데 일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모든 척도들이 편포도가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가 3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자료가 정규분포가정의 위반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Chou, Bentler, & Satorra, 1991; Hu, Bentler, & Kano, 1992)에서 최대가능법이 다변량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나지 않을 시에는 정규분포의 가정의 위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어서 미지수 추정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listwise(casewise) 제거법을 이용하였으며, 변인들의 측정척도가 각기 다르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상관행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에서는 단일모형을 검증하는 방식,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그 중 한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 가설적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모형을 수정해나가는 방식(Joreskog & Sorbom,

1993)이 있는데, 모형을 수정하는 방식은 자료 주도적 과정으로서 자료 표집의 특성에서 오는 우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을 다른 표집이나 전집에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Maruyama, 1998), 본 연구에서는 모형수정을 통한 모형찾기는 시도하지 않았다.

결 과

변수들 간의 관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년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자신의 회피애착, 중년 어머니의 우울, 중년 어머니의 역기능적 태도, 부부갈등,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매우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76, N = 496) = 141.14, p < .001$. $\chi^2/df = 1.86$, NNFI = .970, CFI = .978, RMSEA = .042).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제시된 14가지의 가설적 경로 중 8가지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중년 어머니의 역기능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1, t = 3.64, p < .01$), 중년 어머니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 = .57, t = 4.02, p < .01$).

표 1. 연구변인들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 = 498)

측정변수	ζ1	ζ2	η1	η2	η3	η4	η5	편포도	침도
ζ1 불안애착	—							.30	-.45
ζ2 회피애착	.48**	—						-.41	.25
η1 역기능태도	.38**	.33**	—					.83	2.24
η2. 부부갈등	.10*	.02	.13**	—				.50	.02
η3. 우울	.43**	.28**	.44**	.25**	—			.61	-.25
η4. 자녀 내재화 문제	.10*	.02	.05	.25**	.14**	—		.41	-.13
η5 자녀 외현화 문제	.20**	.10*	.21**	.11**	.54**	.01	—	1.63	1.77
평균	3.12	7.70	18.52	17.76	13.10	8.88	1.74		
표준편차	2.17	2.67	8.23	9.76	7.59	4.85	2.53		

주. * $p < .05$, ** $p < .01$

표 2.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N = 496)

모형	χ^2	df	p	χ^2/df	NNFI	CFI	RMSEA
설정모형	141.14	75	<.001	1.86	.970	.978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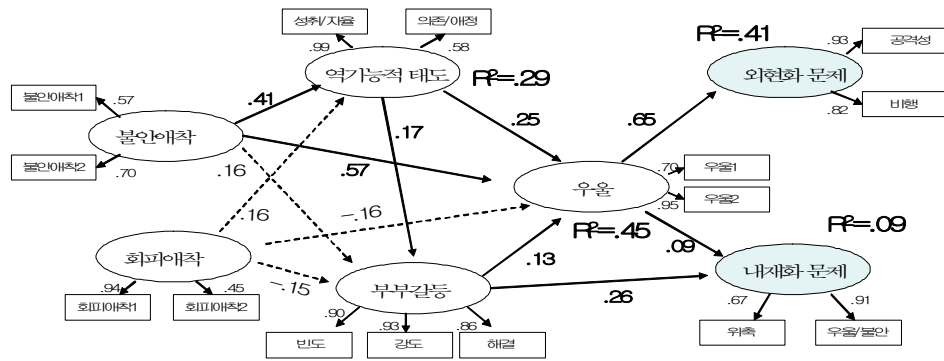


그림 2. 중년 여성의 애착, 역기능적 태도, 부부갈등, 우울과 청소년 자녀의 문제 행동간의 표준화된 구조 모형

표 3. 설정모형의 구조경로

(N = 496)

준거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된 추정치(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고정지수 (t-value)	다중상관자승 (SMC)
역기능적 태도					.29
불안애착(γ11)		.71(.20)	.41	3.64**	
회피애착(γ12)		.17(.11)	.16	1.60	
부부갈등					.05
불안애착(γ21)		.25(.19)	.16	1.32	
회피애착(γ22)		.15(.10)	-.15	-1.49	
역기능적 태도(β21)		.15(.06)	.17	2.65**	
우울					.45
불안애착(γ31)		.70(.17)	.57	4.02**	
회피애착(γ32)		.12(.08)	-.16	-1.52	
역기능적 태도(β31)		.18(.05)	.25	3.73**	
부부갈등(β32)		.11(.04)	.13	2.90**	
내재화 문제					.09
부부갈등(β42)		.19(.05)	.26	3.93**	
우울(β43)		.09(.05)	.09	1.78*	
외현화 문제					.41
부부갈등(β52)		.04(.04)	-.04	-1.00	
우울(β53)		.86(.07)	.65	12.34**	

주. 일방검증, * $p < .05$, ** $p < .01$

중년 어머니의 역기능적 태도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7, t = 2.65, p < .01$), 중년 어머니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 t = 3.73, p < .0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갈등은 어머니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3, t = 2.90, p < .01$),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t = 3.93, p < .01$).

중년 어머니의 우울은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9, t = 1.78, p < .05$),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5, t = 12.34, p < .01$).

그러나 중년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중년 여성의 역기능적 태도,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16, t = 1.60, p > .05$; $\beta = -.15, t = -1.49, p > .05$; $\beta = -.16, t = -1.52, p > .05$).

또한 중년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에,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16, t = 1.32, p > .05$; $\beta = -.04, t = -1.00, p > .05$).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채택된 구조모형이 중년 어머니의 역기능적 태도 변량의 29%를, 부부갈등 변량의 5%를, 중년 어머니의 우울 변량의 45%를,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 변량의 41%를, 자녀의 내면화 문제의 변량을 9%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어머니의 우울과 자

녀의 외현화 문제는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 의해서 잘 예측될 수 있지만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내면화 문제는 본 연구에서 설정되지 않은 다른 변인들에 예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 어머니들의 불안정 애착이 어떠한 심리적 경로를 통하여 중년 여성의 우울증을 유발하고, 유발된 우울증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교차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여성의 불안애착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들(권정혜, 2002; 김은정, 권정혜, 1998; 박영주, 2005; 이지연, 2006; 한상희, 2005)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불안정 애착 중 불안애착이 우울증의 핵심요소임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경우에 의미 있는 타인 즉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애착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은 타인과 지나치게 많이 가까워지기를 원하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이 자신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버림받거나 사랑 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데(신노라, 2000), 이러한 태도는 중년 여성의 생의 초기에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신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권정혜(2002)는 우울증 집단과 정상 집단의 부부관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서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덜 털어놓고, 배우자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덜 하며, 배우자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더 하고, 배우자가 제공하는 안전감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불안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불안애착은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울증상을 보이는 중년기 여성을 상담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애착유형을 확인하여 그 유형이 불안애착 유형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초기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에까지의 심리적 역동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역기능적 태도가 불안애착과 우울증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증의 취약성 소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연구자들(Kuiper et al., 1988; Weissman & Beck, 1978)의 주장과 일치하며, 불안정 애착이 역기능적 태도와 관련되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들(권정혜, 2002; Meyers, 1998; Robert et al., 1996)과 일치한다.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결과는 우울증에 대한 Beck의 인지이론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결국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은 어린 시절에 경험에 의해서 '성취지향성과 자율성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의존성과 애정욕구'라는 부정적인

지도식을 형성하고, 이 역기능적 태도에 의해서 사고내용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결국은 우울증상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에 대한 불안애착이 역기능적 태도를 유발하고 다시 이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결과는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역기능적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도식을 발전시킨다고 본 인지-대인관계 통합접근(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Gotlib & Hammen, 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즉 초기 양육자와의 부정적 애착경험을 한 사람은 인지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취약성이 있고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형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불안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태도의 매개역할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중년 여성의 우울증이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발생하는지를 규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Beck의 인지치료이론에 근거하여 우울증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우울증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신념을 탐색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교정시키는 것 외에 우울증과 역기능적 태도와 연관된 중요한 취약요인으로서 내담자의 불안애착 유형까지를 치료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부갈등이 우울증을 유발하며, 불안애착이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을 통하여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우울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Brown & Harris, 1978; O'Leary, Christian & Mendell, 1993)과 일치한다. 또한 불안애착이 역기능적 태도를 형성시키고 이 역기능적 태도가 부부갈등

을 통하여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의 핵심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태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 일어나는 대인관계적 맥락까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인관계적 접근에서는 우울증상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타인의 지지가 부족하여 악화되고(Carnelley et al., 1994), 가족의 비난(Robert et al., 1996)을 통하여 재발된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을 통하여 우울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부갈등이 우울증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울증은 인지적 측면인 역기능적 태도를 통하여 발생되지만, 우울증의 유지 및 재발은 대인관계적 맥락인 가족관계까지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문선의 연구(2006)에서도 역기능적 인지와 부부 의사소통패턴에 대한 인지행동적 치료방법보다 인지-대인관계치료 방법이 정서적 친밀감 불만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중년 여성의 우울증상에 역기능적 태도 외에 부부갈등까지 관여됨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도 인지적 치료방법보다 인지-대인관계 치료방법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넷째,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재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Peterson과 Zill(1986)의 연구, 불안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Holden과 Ritchie(1991; 정미경, 김영희,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미경과 김영희(2003)의 연구, 부부갈등의 빈도가 불안행동과 위축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권영옥과 이정덕(1999)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사회학습적 관점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언어적, 신체적 갈등을 목격함으로써 외현화 행동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며, 인지-맥락 모델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간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아동의 노력과 반응에 주안점을 두는 접근으로서,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위협적으로 지각되고 자기 비난감을 유발하게 될 때 내재화 문제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는데,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재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에 대한 사회학습적 관점보다는 인지-맥락 모델이 보다 잘 적용됨을 시사한다.

가정갈등이론은 정상가정이라도 부부갈등이 심하면 그것이 자녀의 행복에 주는 부정적 효과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같을 것을 가정하는데, 이훈구(2004)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하여 한국에서는 이혼이 초등학생이나 여자 중학생에게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지만, 반면 사회성의 경우에는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초등학생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부모의 부부갈등을 빈번히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갈등이 배우자간의 심리적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문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상담자가 부부불화 문제로 이혼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상태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중년 여성의 우울은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이 청소년의 부적응과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Cummings & Davies, 1994)와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정신과적 진단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사회적, 학업적, 심리적 기능의 손상으로부터 우울이나 불안 같은 내재화, 공격성과 주의력결핍 같은 외현화 부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를 나타낸 연구결과(Beardslee, Bemporad, Keller, & Klerman, 1983)와도 일치한다.

중년 여성의 우울이 청소년 자녀의 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우울한 어머니의 양육기술 부족(Downey & Coyne, 1990)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우울한 어머니는 임상장면에서 그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침입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아동이 어머니를 피하게 하거나 어머니가 자기연려에 집착해서 아동하게 반응을 억제하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icchetti & Toth, 1995)에서처럼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감정표현이 부족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

게 되다보니 청소년 자녀의 반발심과 저항이 커져서 어머니는 다시 청소년 자녀의 그런 태도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통제적으로 훈육하게 되어 결국에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심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로 까지 세대간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중년 어머니를 상담할 때에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청소년 자녀의 공격이나 비행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녀와의 대화기술 훈련 같은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불안정 애착 유형 중 불안애착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피애착은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애착이 회피애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영주(2005)의 연구, 불안애착은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회피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유영란(2005)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불안애착 유형의 중년여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모델을 형성하고 애착대상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민감하며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기 원하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이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기를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부적절하고 과도한 근접성 추구행동을 보이게 되어서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어(한혜영, 2004), 결국에는 부부관계를 악화시켜서 우울증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회피유형의 사람들은 애착대상으로부터 반

복적으로 거부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부정적 작동모델을 형성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유형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도 낮고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 특성상 자신의 우울 정서를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Searle & Meara, 1999). 따라서 회피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기보고식 우울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회피애착과 우울 정서와의 관련성은 우울을 측정하는 방법을 다양화하여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중년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불안애착은 우울증을 유발하는데, 역기능적 사과의 수준에 따라서 우울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중년 어머니의 우울증상은 다시 세대간에 전달되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 청소년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교생이나 대학생 청소년들에게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중년 어머니들은 주로 40대 여성들이기 때문에 50대 여성들까지도 포함될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중년 어머니들만을 선정한 즉 임상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애착, 부부갈등, 우울증상간의 관계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덕귀 (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4(1), 100-111.
- 권숙희 (1996).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간호학회지*, 2(2), 235-253.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8.
- 권정혜 (2002).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95-607.
- 김소향 (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 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 22(2), 343-362.
- 김은정, 권정혜 (1998a). 우울 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취약성: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55-169.
- 김은정, 권정혜 (1998b).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4.
- 박영주 (2005). 애착의 회피-불안 차원에 따른 우울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노라(2000). 성인애착유형과 대인불안수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은영, 김경연, (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사건, 스트레스사건의 경험빈도, 그리고 스트레스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7.
- 신희석 (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5.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해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6), 896-903.
- 유영란 (2005).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은광, 김명희, 김태경 (1999).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 우울과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2), 225-237.
-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D)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시형, 오강섭, 허묘연 (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검사의 개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2), 198-208
- 이정미 (2002).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47-53.
- 이훈진 (2004).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381-395.
- 장문선 (2006).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대인관계 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299-321.
- 장문선, 김영환 (2003).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99-414.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6(1), 80-97.
- 장휘숙 (2006). 애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

- 심리학회지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76-277.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연진 (2002). 부모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은희, 이미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의 애착 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계: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비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1), 3-12.
- 한상희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혜영 (2004).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 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1991a).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1991b)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nett, P. A., & Gotlib. I. H. (1988).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Distinguishing among anteced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97-126.
- Beardslee, W. M., Bemporad, J., Keller, M. B., & Loeman, G. L. (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a major affective disorder: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25-852.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Harper & Row.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9).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rospective mediating proces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19-14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own, G. W., &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s in women*. New York: Basic Books.
- Bryne, B. (1989). *A primer of LISREL: Basic*

-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New York: Springer-Verlag.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hou, C.-P., & Bentler, P. M., & Satorra, A. (1991). Scaled test statistics and robust standard errors for non-normal data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 Monte Carlo study.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4, 347-357.
- Cicchetti, D., & Toth, S.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80-1397.
- Cummings, E. M., & Davies, P.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ummings, J. S., Pellegini, D. S., Notarius, C. I., & Cummings, E.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al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56-1669.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5.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s,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5).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otlib, I. H. (1992). Interpersonal and cognitive aspects of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149-154.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 interpersonal integration*. Chichester: Wiley.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311-327.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Hammen, C. (2003). Social stress and women's risk for recurrent depression.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6, 9-13.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rrist, A. W. & Ainslie, R. C. (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140-163.
- Hu, L.-T., Bentler, P. M., & Kano, Y. (1992). Can test statistic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be trusted? *Psychological Bulletin*, 112, 351-362.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Jorgenson, D. (1985). Transmitting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replication and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males and femal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3, 109-117.
- Kessler, R. C., McGonagle, K. A., Swartz, M., Blazer, D. G., & Nelson, C. B. (1993). Sex and depression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I: Lifetime prevalence, hornicity, and recurr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 85-96.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uiper, N. A., Olinger, L. J., & Martin, R. A. (1988). Dysfunctional attitudes, stress, and negative emo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533-547.
- MacKinnon, A., Henderson, A. S., & Andrew, G. (1993). parental 'affect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A risk factor refined. *Psychological Medicine*, 23, 135-141.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eyers, S. A. (1998). Personality correlates of adult attachment sty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407-409.
- O'Leary, K. D., Christian, J. L., & Mendell, N. R. (1993). A closer look at the link between discord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1-41.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 48-75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1997).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daily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409-142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ert,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Searle, B., & Meara, M. N.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147-158.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Thompson, R. A. (2000). The Legacy of Early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71*, 145-152.
-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al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al Therapy, Chicago.

원 고 접 수 일 : 2007. 3. 19

수정원고접수일 : 2007. 4. 30

게 재 결 정 일 : 2007. 5. 1

The Influence of Middle-Aged Women's Insecure Attachments on Their Depression and the Behavior Problems in Thier Childre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Marital Conflicts

Jeong-Ran Kim

Eun-Hee Lee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process in which middle-aged mothers' attachment insecurity has effects on their depression and the behavior problems in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a model was devised to determine if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in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through marital conflict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and the middle-aged mothers' depression is in turn transmitted to the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s of their teenagers. The hypothetically constructed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data were drawn from 508 adolescents in 10 junior high schools (the second-and third-year students from 40 classes) and their mothers in Changwon, Masan, Jinju, and Yangsan, Kyungnam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xiety attachments of middle-aged women lead to depression. This confirmed that anxiety attachment is the linchpin of depression in insecure attachment. The dysfunctional attitude of middle-aged women mediates the relations of anxiety attachment to depression. The marital conflicts brought about th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and anxiety attachments influenced their depression through dysfunctional attitudes and marital conflicts.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s on their teenagers was found to be limited only to internalized problems, but not to externalized ones. However,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impacted their teenagers'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s. The anxiety attachment among insecure attachments played a key role in inducing depression, while avoidance attachment did not. In conclusion, the anxiety attachments of middle-aged mothers with their respective spouses were contributed to depression, which can be aggravated by the dysfunctional attitudes of the mothers. Transmitted to the next generation, the depression of the mothers can increase the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s of their teenagers.

Key words : *Insecure Attachments, depression, dysfunctional attitudes, marital conflicts, behavior problems.*